

성서의 우리말 번역과 불어 번역

박 혜 숙
(연세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불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신약 성서의 우리말 번역과 불어 번역을 읽으며 마주치게 되는 차이점들을 몇 개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비교는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언어적 관점에서의 비교이고 둘째는 문화적 관점에서의 비교이며 셋째는 성서의 내용과 관련된 해석적 관점에서의 비교이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1950년대에 번역된 <개역 한글판>이 아닌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였으며 불어 성경은 Louis Segond 이 번역한 La Sainte Bible을 사용하였다. 불어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번역도 함께 참조하였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NIV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참조하였다.

II. 언어적 관점에서의 비교

1. 인칭 대명사의 사용

www.kci.go.kr

불어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매우 쉽고 명료하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특히 불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 중 하나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와 달리 매우 친근하게 또 인간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우리는 우리말과 불어 사이에 존재하는 인칭 대명사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우리말은 존대말, 반말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 구분은 수직적 관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 극존칭의 어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불어에는 말하는 상대에 따라 Tu와 Vous로 구별하여 말하는 언어습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의 존대말/반말처럼 수직적인 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멀고 남인 경우에는 Vous라는 호칭을, 가까운 사이일 경우에는 Tu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원래 Vous는 2인칭 복수를 Tu는 2인칭 단수를 의미했다고 하는데 현재에 와서 Vous는 2인칭 복수와 2인칭 단수 둘 다의 경우에 사용한다. 이때 단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친하지 않고 격식을 차려야하는 사이인 경우에 사용한다.¹⁾ 그러므로 불어에서는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Tu를 사용한다. 모르는 사이일 때는 Vous를 사용하다가도 어느 정도 친해지면 “이제부터 Tu라고 해도 좋아”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이제 친구사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일한 단수여야 하기 때문에 불어 성경에서 호칭은 언제나 Tu이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라며 극존칭을 사용하지만 불어로는 “Que ton nom soit sanctifié; que ton règne vienne”이다. 영어로도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이란 매우 친숙한 어투로 표현되어 있다. 구약의 십계명도 tu를 사용한다: “Tu ne tueras point.” 이것은 우리말 성경이 주는 엄숙하고 무서운 울림과는 매우 대조적인 친근한 느낌을 준다. 마태복음 2장 13절

1) 영어에서도 예전에는 2인칭 단수를 지칭하는 Thou와 2인칭 복수를 지칭하는 You의 구별이 있었는데 현재는 2인칭 단수 복수를 통틀어 You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Thou는 시를 쓸 때나 혹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당연히 단수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할 때도 “Lève-toi”, 영어 성경에서는 “Get up ”이라고 말한다.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마태복은 3:14)라며 극존칭을 사용하여 말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불어와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Mais Jean s'y opposait, en disant: C'est moi qui ai besoin d'être baptisé par toi, et tu viens à moi!

But John tried to deter him, saying,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do you come to me?"

불어와 영어 번역이 보여주는 친근한 말투는 우리말의 극존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어문화의 다름으로 인해 야기되는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말 인칭의 수직적이며 계급적인 구분(존댓말/반말)과 불어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구분(Vous/Tu)이 갖는 차이이다. 우리말의 수직적 구분에서 하나님은 수직선상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게 된다. 반면에 불어의 수평적 구분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깝고 내밀한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언어적 차이는 분명 신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차이를 야기시킬 것이다.

2. 직역의 경우

우리말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말이 아닌 낯선 표현들을 볼 때가 있다. 불어와 영어 성경과 비교해보면 많이 부분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생겨난 현상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디모테전서 6:10)

Car l'amour de l'argent est une racine de tous les maux; et

quelques-uns, en étant possédés, se sont égarés loin de la foi, et se sont jetés eux-mêmes dans bien des tourments.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Some people, eager for money, have wandered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에서 “찔렀도다”는 영어로는 “pierced”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원문의 뜻도 그러하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우리말 표현에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표현은 매우 어색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불어 성경에서는 “많은 근심 속에 자신을 내던져놓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인 “많은 근심으로 애간장을 끓이도다”로 의역을 하는 것이 더 의미를 분명히 전달해준다. 또 다른 예를 보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테전서 6:17)

Recommande aux riches du présent siècle de ne pas être orgueilleux, et de ne pas mettre leur espérance dans des richesses incertaines, mais de la mettre en Dieu, qui nous donne avec abondance toutes choses pour que nous en jouissons.

Command those who are rich in this present world not to be arrogant nor to put their hope in wealth, which is so uncertain, but to put their hope in God, who rich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여기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의 원뜻은 “오만, 거만하지 말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은 한자의 “자고 自高하지 말고”를 직역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말로 옮겼을 때는 이 또한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대신 “오만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준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도 “불확실한” 다시 말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재물을 말한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이 본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언어표현이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구절에서는 단어를 그대로 단어 대 단어로 옮김으로 해서 야기되는 번역상의 오류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
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18)

Nous tous qui, le visage découvert, contemplons comme dans un
miroir la gloire du Seigneur, nous sommes transformés en la même
image, de gloire en gloire, comme par le Seigneur, l'Esprit.

And we, who with unveiled faces all reflect the Lord's glory,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with ever-increasing glory, which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여기에서 불어와 영어 번역과 우리말 번역을 비교해보면 우리말 번역이 얼마나 서투르게 번역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의미는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직역으로 인해 정체불명이 된 문장의 예이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는 불어의 “reflète” 영어의 “reflect”이다. 전체적인 뜻은 나중에 우리의 베일을 벗은 얼굴이 주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충만한 얼굴이 주의 모습처럼 빛난다는 뜻인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는 동사 “reflète”의 일차적 의미를 그대로 번역한 완전한 오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야고보서 1:4)

Mais il faut que la patience accomplisse parfaitement son oeuvre, afin que vous soyez parfaits et accomplis, sans faillir en rien.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여기에서도 “온전하고” 다음에 나오는 “구비하여”란 대체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은 불어로는 “accomplis”이고 영어로는 “complete”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게 되어' 혹은 '완성되어'의 뜻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3. 한문체

다음 예문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한문체의 번역으로 인해 불어나 영어에서 느낄 수 있는 일상적 언어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경감시키고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Mais le fruit de l'Esprit, c'est l'amour, la joie, la paix, la patience, la bonté, la b nignit , la fid lit , la douceur, la ma trise du soi; la loi n'est pas contre ces choses.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여기에서 “희락”이나 “양선”은 우리말이라기보다는 한문체를 그대로 사용

한 것이며 마지막에 “절제”라는 어휘도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한문체의 직역은 이 문구가 가지는 기독교적 핵심을 감동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는 불어번역으로는 “la maîtrise du soi” 영어로는 “self-control”인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자기 통제,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말한다. “절제”라는 표현은 기독교적 교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4. 기타

1) 문장 부호와 문자적 변형

이 외에도 언어 표현적 차원에서 우리말 성경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해볼 수 있다. 먼저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문장 부호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마침표도 없고, 따옴표와 같은 인용부호도 없다. 느낌표나 물음표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쉼표가 있기는 하지만 찾기가 힘들 정도로 드물게 사용된다. 또 이탤릭체 강조나, 강조를 위해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것(Esprit, Foi, Aujourd'hui)과 같은 문자적 변형들이 우리말에는 없다. 그런데 불어나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문장 부호 혹은 대문자로 시작하거나 이탤릭체로 강조하기와 같은 문자적 변형 등이 실제로 문장의 뜻을 정확하고 분명히 전달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장 부호와 강조가 전혀 없는 우리말 성경은 마치 의미 전달과는 무관한 성스런 영역인양 우리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다. 때로 이와 같은 문자적 변형의 부재는 번역의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야기한다. 대문자로 표현됨으로 해서 갖게 되는 그 문자의 역사적, 문화적 혹은 해석학적 의미가 우리말에는 전혀 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2) 사용하지 않는 말

또한 우리말 성경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어휘의 잔재들이 많이 있다. (“미쁘시다”와 같은) 또 지명을 말할 때도 현재 우리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무시하고 예부터 써오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는 애굽으로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으로 파라오 왕은 바로왕으로 코린트는 고린도로 표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백년 가까이 암송되어온 자구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며 성구의 전통적 의미 계승이 아닌 가 싶다. 마치 김소월의 시구가 현대 말과 다르다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표현보다 의미 전달에 더 강조점을 둔다면 이와 같은 소통 불능의 어휘들은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III. 문화적 관점에서의 비교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적 관점에서 우리말 성경과 불어 성경을 비교해보았다. 이번에는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말 성경과 불어 성경이 보이는 의미적 차이를 분석해보기로 하자.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 서구인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개념을 살펴보면서 우리말 성경과 불어 성경의 차이를 조명해보려고 한다.

1. ‘죄’에 대한 생각의 차이

‘죄’에 대한 서구인들과 우리들의 생각 차이가 번역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와 같은 차이는 단지 번역상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본질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 기독교 교리가 주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지나친 정죄의식이라고 할 때 서구인들과 우리의 죄에 대한 생각과 그것으로 인한 번역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면 먼저 서구인들의 죄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자. 불어나 영어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한다. 형사상의 죄는 불어나 영어 모두 crime이란 단어로, 도덕상 혹은 종교상의 죄는 불어에서는 péché(혹은 offense) 영어에서는 sin(혹은 trespass)으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도 이

두 가지는 구별되어 쓰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다. 죄와 범죄라는 구별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종교적인 죄인 sin을 지칭할 때도 ‘범죄’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25)

(Jésus notre Seigneur)lequel a été livré pour nos offenses, et est ressuscité pour notre justification.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15)

Mais il n'en est pas du don gratuit comme de l'offense; car, si par l'offense d'un seul il en est beaucoup qui sont morts, à plus forte raison la grâce de Dieu et le don de la grâce venant d'un seul homme, Jésus Christ, ont-ils été abondamment répandus sur beaucoup.

But the gift is not like the trespass. For if the many died by the trespass of the one man, how much more did God's grace and the gift that came by the grace of the one man, Jesus Christ, overflow to the many!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들과 다른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서구에는 일반적인 죄와 구별되는 원죄의 개념이 기독교 사회가 보편화되기 이전인 고대 사회로부터 존재하는데 우리에게도 원죄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적 코드의 차이는 번역에 있어

서도 많은 차이점들을 야기한다. 그러면 먼저 기독교 문화 속에서의 원죄와 죄의 개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원죄와 선악과 사건

먼저 다음 예문을 보면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되기 이전부터 서구인들의 내면에는 원죄에 대한 집단적 이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사전에 나오는 원죄에 대한 설명이다.

일부 고대 사회는 집단적인 죄의 개념(원죄)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인간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집단적 죄는 원초적이고 행복한 순진무구 상태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했다’는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브리태니커 인터넷 사전 “죄” 부분참조)

그러므로 성서 이전부터 서구에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원초적 죄에 대한 개념이 신화의 형태로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서의 선악과 사건은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상징적 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서에서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의 개념이다. 우리는 서구인의 ‘원죄’ 또 ‘죄’에 대한 본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두 성서 사이의 번역상의 차이 또 그것으로 야기되는 기독교 교리 해석의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원죄’에 대해 살펴보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 즉 이미지를 따라 지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세기 1:26)

Puis Dieu dit: Faisons l'homme à notre image, selon notre ressemblance, et qu'il domine sur les poissons de la mer, sur les oiseaux

du ciel, sur le bétail, sur toute la terre, et sur tous les reptiles qui rampent sur la terre.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an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over the livestock, over all the earth,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님으로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 곧 이미지란 한 마디로 사랑 그 자체이다. 『하느님 그 현대적 논의』라는 책에서 신은 “보편성, 탈이 기, 선, 완벽성의 실재적 토대”이며 또 “모든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주의를 초월한 상태이다”²⁾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은 자의식이 없는 존재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자의식 없이 오직 타자만을 사랑하는 영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미지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애초에 자의식 없이 오직 남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된 영혼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혹은 자의식, 더 나아가 ‘스스로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본래의 아름다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원죄란 인간이 자의식에 눈을 뜨게 된 것 그 자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흥미로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창세기 3장 7절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 내면의 자의식이 깨어나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은유이다. 두 번째 상징적 사건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과 이브는 고유의 이름이 없이 계속 “남자”와 “여자”로만 지칭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아담과 이브라는 개별적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창세기 3장 17절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할 때

2) Frederick Sontag & Darrol Bryant, 『하느님 그 현대적 논의』, 국제 크리스찬 교수 협의회 옮김, 43쪽, 1982, 도서출판 主流.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는 한 번도 아담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다)이고, 불어 성경에서는 그 보다 더 후인 3장 20절 아담이 아내에게 이브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이다. 고유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9절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 곧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분명 번역상의 오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악과는 영어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고 불어로는 'l'arbre de la connaissance du bien et du mal'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악과의 본질은 분별하는 판단력이다. 인간의 자의식이란 곧 분별력, 판단력을 말한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미움, 다툼 등 세상의 모든 악이 파생된다. 그리고 이 상태는 자의식이나 판단력 없이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 된 상태에서부터 완전히 추락한 상태이다. 자기중심적인 분별력은 인간 개개인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모든 관계와 사회를 파괴하는 원초적 악이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으로 프로그램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며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본질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

Car tous ont péché et sont privés de la gloire de Dieu;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2)

C'est pourquoi, comme par un seul homme le péché est entré dans

le monde, et par le péché la mort, et qu'ainsi la mort s'est étendue sur tous les hommes, parce que tous ont péché,...

Therefore, just as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in this way death came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3.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의 '죄'와 우리말 성경에서의 '죄'

지금까지 우리는 원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원죄란 본질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의식 혹은 자기중심성임을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죄의식을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원죄'가 아닌 또 다른 '죄' 곧 인간이 행위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은 기독교 문화에서의 '죄'와 우리가 의식하는 '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먼저 6세기 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구분한 '7가지 큰 죄'에 대해 살펴보자.

그리스도교에 수도원 제도가 생긴 6세기 초에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인간의 죄악을 분류하여 규정한 7가지 죄악. 어떤 죄를 7가지 큰 죄 가운데 하나로 부르는 까닭은 도덕적으로 중대한 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또는 동기)이 되어 다른 죄악을 낳기 때문이다"(토마스 아퀴나스). 옛날부터 7가지 큰 죄로 규정된 죄는 다음과 같다. 1. 자만 또는 거만 2. 탐욕 3. 정욕 즉 지나치거나 부정한 성적 욕망 4. 질투 5. 과식(과음) 6. 노여움 7 게으름 등이다. 이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저서는 13세기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다³⁾

여기에서 말하는 7가지 큰 죄의 본질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한 마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7가지 큰 죄가 시작되고 이것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다른 죄악"을 낳게 되는 것이

3)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8c1403a

다. 영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sinful nature*란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일컫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열정과 탐욕을 뜻하는 어휘인 *passion*이나 *convoitise* 혹은 *evil desire* 등도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 욕망을 지칭한다고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이것과 다르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상의 범죄를 큰 죄로 여길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위에서 말한 7가지 죄악의 하나인 ‘자만’이나 ‘노여움’이나 ‘질투’ 등을 그리 큰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중심성을 큰 죄로 여기는 기독교 문화에서는 교만이나 분냄과 같은 감정조차 다른 죄악을 낳게 하는 결정적인 큰 죄로 여긴다. 또 우리는 죄라는 것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열정을 뜻하는 *passion*은 거의 예외 없이 ‘정욕’이란 말로 번역되며 탐욕의 뜻을 갖는 *convoitise*는 ‘색욕’ ‘음란’ 등으로 번역된다. 다시 말해 육체적인 방종의 차원으로만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어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좀 더 광의의 차원에서 자기중심적 욕망이나 탐욕으로 해석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의 번역을 비교해보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로마서 7:5)

Car, lorsque nous étions dans la chair, les passions des péchés provoquées par la loi agissaient dans nos membres, de sorte que nous portions des fruits pour la mort.

For when we wer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the sinful passions aroused by the law were at work in our bodies, so that we bore fruit for death.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후서 1:3-4)

Comme sa divine puissance nous a donné tout ce qui contribue à la vie et à la piété, au moyen de la connaissance de celui qui nous a appelés par sa propre gloire et par sa vertu, lesquelles nous assurent de sa part les plus grandes et les plus précieuses promesses, afin que par elles vous deveniez participants de la nature divine, en fuyant la corruption qui existe dans le monde par la convoitise.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Through these he has given us his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and escape the corruption in the world caused by evil desires.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니(테살로니가전서 4:3-7)

Ce que Dieu veut, c'est votre sanctification; c'est que vous vous absteniez de l'impudicité; c'est que chacun de vous sache posséder son corps dans la sainteté et l'honnêteté, sans vous livrer à une convoitise passionnée, comme font les païens qui ne connaissent pas Dieu; c'est que personne n'use envers son frère de fraude et de cupidité dans les affaires, parce que le Seigneur tire vengeance de toutes ces choses, comme nous vous l'avons déjà dit et attesté. Car Dieu ne nous a pas appelés à l'impureté, mais à la sanctification.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that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his own body in a way that is holy and honorable, not in passionate lust like the heathen, who do not know God; and that in this matter no one should wrong his brother or take advantage of him. The Lord will punish men for all such sins, as we have already told you and warned you. For God did not call us to be impure, but to live a holy life.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베드로후서 2:9-10)

le Seigneur sait délivrer de l'épreuve les hommes pieux, et réserver les injustes pour êtres punis au jour du jugement, ceux surtout qui vont après la chair dans un désir d'impureté et qui méprisent l'autorité. Audacieux et arrogants, ils ne craignent pas d'injurier les gloires,

if this is so, then the Lord knows how to rescue godly men from trials and to hold the unrighteous for the day of judgment, while continuing their punishment.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ose who follow the corrupt desire of the sinful nature and despise authority. Bold and arrogant, these men are not afraid to slander celestial beings;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와 위에 말한 서구인들의 7가지 죄를 생각 하며 영어나 불어 성경을 읽을 때 우린 죄에 대한 다른 개념들을 상기시키게 된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성경이 내포하는 광범위한 함의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의 이와 같은 번역상의 특징은 기독교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사랑보다 자신과 남에 대한 정죄감에 더 무게를 두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할 수 있다. 정죄하는 일차적인 대상이 자기 자신임은 물론이며 이러한 부작용으로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인이 양성될 수

도 있다. 나와 남에 대해 사랑을 품는 완전성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성경의 최종 목표라면 자신과 타자에 대해 정죄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성경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말 성경의 해석을 따르자면 단지 성적으로 타락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줄 수도 있다. 도덕적으로 경건하기만 하면 기독교인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교만하며 남을 질투하거나 화를 내는 것 또한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 지 못하며 또 도덕적이기만 하면, 다시 말해 율법적이기만 하면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자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라 아니할 수 없다.

IV. 해석적 관점

이번에는 해석학적 측면에서 우리말 번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불어나 영어에서는 그들 나름의 표현으로 전달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들이 우리말로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세 가지 예를 살펴보겠는데 “스스로 있는 자 *Je suis*”라는 표현과 “다시 한번 *Une fois encore*”이라는 표현과 대문자로 시작하는 “오늘 *Aujourd'hui*”라는 표현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표현들이 갖는 해석적 의미와 또 이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 우리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Je suis*”-스스로 있는 자

먼저 불어의 “*Je suis*”가 갖는 성경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 시키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만일 그들이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부른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애굽기 3:14)

Dieu dit à Moïse: Je suis celui qui suis. Et il ajouta: C'est ainsi que tu répondras aux enfants d'Israël: Celui qui s'appelle '**je suis**' m'a envoyé vers vous.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자”라고 말한다. 이것은 불어로는 “Je suis celui qui suis”이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Je suis”라는 사람이 너를 보냈다고 하라며 불어에서는 이 이름을 인용부호로 강조하고 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 예수가 곧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구절로, 다시 말해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구절로 자주 인용되는데 여기에서도 “Je suis”라는 표현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요한복음 8:58)

Jésus leur dit: En vérité, en vérité, je vous le dis, avant qu'Abraham fût, **je suis**.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Je suis”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문맥에 맞게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I am”이라고 말할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과 하나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위에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를 증명해주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말 성경에서 위의 두 성경구절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와 “내가 있느니라”를 볼 때 두 구절이 하나의 의미 곧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전혀 유추할 수 없다. 다시 말해 “Je suis”가 내포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스스로 있는 자 Je suis”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의미를 간과한 때문이다.

2. “또 한 번 Une fois encore”와 “오늘 Aujourd'hui”

이번에는 “또 한 번 Une fois encore”와 “오늘 Aujourd'hui”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이 말은 불어와 영어 성경에서 매우 큰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앞서 살펴본 원죄의식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며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의 날을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세상의 끝 날이 올 것을 예언하셨으며, 선택된 자만이 최후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세 가지 언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근본이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또 한 번 Une fois encore”와 “오늘 Aujourd'hui”의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는 열쇠이기도 하다. “오늘 Aujourd'hui”이란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사는 현재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오늘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면 먼저 “또 한 번 Une fois encore”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하나님은 종말을 언급하며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는 말을 한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
 까 보나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히브리서 12:25-27)

Gardez-vous de refuser d'entendre celui qui parle; car si ceux-là n'ont
 pas échappé qui refusèrent d'entendre celui qui publiait les oracles sur
 la terre, combien moins échapperons-nous, si nous nous détournons
 de celui qui parle du haut des cieux, lui, dont la voix alors ébranla
 la terre, et qui maintenant a fait cette promesse: Une fois encore
 j'ébranlerai non seulement la terre, mais aussi le ciel. Ces mots: **Une
 fois encore**, indiquent le changement des choses ébranlées, comme étant
 faites pour un temps, afin que les choses inébranlables subsistent.

See to it that you do not refuse him who speaks. If they did not
 escape when they refused him who warned them on earth, how much
 less will we, if we turn away from him who warns us from heaven?
 At that time his voice shook the earth, but now he has promised, "Once
 more I will shake not only the earth but also the heavens." The words
 "**once more**" indicate the removing of what can be shaken--that is,
 created things--so that what cannot be shaken may remain.

여기에서 “또 한 번”이란 말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님이 “또
 한 번” 땅과 하늘을 진동케 한다는 것은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이 진동
 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세상을 진동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또 한 번의 천지개벽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앞으로 오게 될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한다. 위에 인용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은 편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불어 성경에서 이
 인용부분은 인용부호로 표시되어 있다. 또 이후 바울의 편지에서도 “또 한

번 *Une fois encore/Once more*”이란 부분은 인용부호로 구별됨으로 이 문장이 내포하는 종말론적 의미를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말 번역의 경우는 이 말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지 못한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진동할 것들”은 사라지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만 영존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진동하는 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도 우리말 성경과 불어 성경을 비교해보면 매우 재미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말에서는 “진동할 것들”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부분을 “곧 만드신 것들”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불어로는 “한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 *choses ébranlées, comme étant faites pour un temps*”⁴⁾ 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창조된 것들 *what can be shaken-that is, created things*”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러므로 불어와 영어 번역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이 사라질 것임을 분명히 밝혀준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인용부호도 사용하지 않으며 또 “한 순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란 의미도 내포하지 않은 채 그냥 “만드신 것들”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의 창조와 다시 올 종말을 내포하는 이 구절의 상징적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안식에 대한 언약을 통해 “오늘 *aujourd'hui*”의 의미를 살펴보자. 정통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시편 95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인용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

4)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판본의 번역을 보면 *Bible de Jérusalem & Louis Segond*에서는 이 부분을 “ *puisque ce sont des réalités créées*”라고 번역하고 있다. 또 1669년 *Bible de Genève*(칼뱅등 종교 개혁가들이 사용한 초기 불어 번역서)에는 “*comme de celles qui ont été faites de main*”라고 되어있고 1744년 David Martin이 번역한 *Sainte Bible*에는 “*comme ayant été faites [de main]*”이라고 되어있다.

게 하지 말지어다 그 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사십 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5편)

Car il est notre Dieu, Et nous sommes le peuple de son pâturage, Le troupeau que sa main conduit... Oh! si vous pouviez écouter aujourd'hui sa voix! N'endurcissez pas votre coeur, comme à Meriba, Comme à la journée de Massa, dans le désert, Où vos pères me tentèrent, M'éprouvèrent, quoiqu'ils vissent mes oeuvres. Pendant quarante ans j'eus cette race en dégoût, Et je dis: C'est un peuple dont le coeur est égaré; Ils ne connaissent pas mes voies. Aussi je jurai dans ma colère: Ils n'entreront pas dans mon repos!

For he is our God and we are the people of his pasture, the flock under his care.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you did at Meribah, as you did that day at Massah in the desert, where your fathers tested and tried me, though they had seen what I did. For forty years I was angry with that generation; I said, "They are a people whose hearts go astray, and they have not known my ways." So I declared on oath in my anger, "They shall never enter my rest."

이것은 기원전 1000년경 다윗왕이 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원후 70년경 바울은 히브리서를 쓰며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인용한다. 또 여기에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불어와 영어성경에서는 문장 부호 (콜론 혹은 인용부호)와 함께 기술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통해 바울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논증적으로 풀어나간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관한 성서적 교리에 있어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말 성경의 경우는 이 말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전혀 강조해주지 못한다. 이제 이 시편의 말씀과 관련하여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히브리서 4:7-8)

Dieu fixe de nouveau un jour-aujourd'hui-en disant dans David si longtemps après, comme il est dit plus haut: Aujourd'hui, si vous entendez sa voix, N'endurcissez pas vos coeurs. Car, si Josué leur eût donné le repos, il ne parlerait pas après cela d'un autre jour.

Therefore God again set a certain day, calling it Today, when a long time later he spoke through David, as was said before: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For if Joshua had given them rest, God would not have spoken later about another day.

여기에서 “오늘”은 불어와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쓰여 있다. 바울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언약 중에 “오늘”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진행 중이라고 결론짓는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이라는 말은 “만약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준 것이라면”이란 뜻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날에 대한 언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 말고 종말에 최후의 안식이 “또 한 번”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위에 인용한 시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미래형 시제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바울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히브리서 4:9)라고 말한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의 약속이며 복음이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안식에 동참할 수 있으며, 안식에 동참하는 자(선택된 자)는 그 증표로 하나님처럼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동시에 선택된 자라는 증표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Aujourd'hui*”은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인류의 시간을 지칭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13)

Mais exhortez-vous les uns les autres chaque jour, aussi longtemps qu'on peut dire: **Aujourd'hui!** afin qu'aucun de vous ne s'endurcisse par la séduction du péché.

But encourage one another daily,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so that none of you may be hardened by sin's deceitfulness.

여기에서도 우리말 번역에서는 “오늘”이라는 어휘가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불어와 영어 번역에서 “오늘”은 대문자로 게다가 그 뒤에 느낌표까지 붙여 강조됨으로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강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이 단지 하나님의 “오늘”에 불과한 것이며 이 “오늘”은 곧 끝나고 “내일”이 올 것이라는 종말론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뒤 400년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이 부분을 근거로 인간의 유한한 시간에 대한 성찰을 『고백록』 제 11장에 쓰게 된다. 또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경험에 대한 글이 이후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또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과 더 나아가 실존주의 철학에 미친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한 단어에 대한 해석이 많은 철학적 사고들을 깨우는

것을 볼 때 대문자 강조나 인용부호 혹은 느낌표 등으로 강조되지 않는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들과는 다른 해석적 지평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V.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성서의 우리말 번역을 불어와 영어 번역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적, 문화적 차이점 혹은 해석적 관점에서의 차이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또 그와 같은 번역상의 차이가 의미 전달에 있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독교 교리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 글을 마치며 드는 생각은 구두점조차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우리말 성경은 번역에 있어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어쩌면 성경 번역 작업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번역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후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왜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하지 않는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얼마 전 새로 개역된 성경에도 한문체나 옛 표현들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시대착오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두고, 게다가 여전히 마침표와 쉼표 같은 구두점조차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는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한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수십 년을 암기해온 습관 등이 성경의 가독성보다 우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는 감동일 테니까.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닌 신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라고 말한다. 『교양』의 작가 디트리히 슈바니츠는 책에서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의 저자는 호메로스이며 성서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그것을 옮겨 적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번역도 마찬가지다. 번역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최초로 헬라어로 옮긴 『70인 역 성경』의 경우에도 70명의 번역가를 모두 다른 방에 넣고 번역을 시키고 나중에 모아보니 모두 똑같은 번역을 했더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전달되는 감동이며 성경의 경우 감동은 가장 절대적 가치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에 나오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은 감동으로 성서를 읽어야 한다는데 대한 좋은 지침으로 여겨진다.

성서를 읽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것처럼 마음에 로의, 임으로부터 나에게 온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자기에게 보내온 편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동떨어진 사람들이다...그들은 학문적 해석이나 연구를 통해 거울 그 자체를 보는 일에만 몰두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5)

❖ 참 고 문 헌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기독교서회.
표재명, 『키에르케고어 연구』, 지성의 샘, 1995.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김광채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양리 베르그송,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최화 옮김, 아카넷, 2001.
Frederick Sontag & Darrol Bryant, 『하느님 그 현대적 논의』, 국제 크리스찬 교수 협의회 옮김, 43쪽, 1982, 도서출판 主流.
La Sainte Bible, traduite des textes originaux hébreu et grec par Louis Segond, Nouvelle Edition de Genève 1979, Société biblique de Genève.
La Bible de Jérusalem & Louis Segond
La Bible de Genève, traduite par Jean Calvin, 1669.
La Sainte Bible, tracuite par David Martin, 1744.

5) 표재명, 『키에르케고어 연구』, 지성의 샘, 1995, 111-112쪽에서 재인용.

The Holy Bible,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Zondervan, 1984.

Augustin, *Les Confessions*, trad.J.Trabucco, coll «GF», Flammarion, 1964.

Bergson (Henri), *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 coll.
«Quadrige», PUF, 1993.

인터넷 참조 사이트

<http://www.holybible.or.kr>

<http://www.info-bible.org>

<http://preview.britannica.co.kr>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 Korean and French

Park Hae Sook

This article is a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and French translation of the Bible. The comparison has three points:

1. Verbal expression
2. Cultural context
3. Hermeneutic questions

Concerning the verbal expression, for example, we compare the two ways of addressing to God in studying the difference in the personal pronoun. In Korean, God is the object of respect and fear whereas in French, we interact with God in a friendly relation which is revealed in the use of the personal pronoun 'tu'. Through this difference of language, we can notice the two different concept of God. We can equally face the problem of "word to word" in the simplified translation of the Bible in Chinese which the Korean translation is founded in reference to, and the use of chinese words that is no longer used in the Korean language.

In the cultural domain, we analysis the way of interpreting "sin" in the Korean culture where the notion of "original sin" does not exist. It is not possible to distinguish "sin" and "crime", and in addition, to access a god comprehension of the biblical concept.

In the hermeneutic questions, we compare the translation of the expression "I am" and the word Today in the two Bibles. In the Korean One, it is difficult to emphesize the symbolic importance of the two expressions with the absence of punctuation and paranthesis.

Key Words

성경번역, 번역비교, 한글성경과 불어성경, 원죄, 죄

Bible translation, comparison of translation, Korean Bible and French Bible, Sin, Original Sin

논문접수일: 2009. 11. 15.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